



(미국사무소, 2026 July)

1 과학기술 R&D · ICT 연구 동향

1) 과학기술 R&D · ICT 분야

□ 고온 초전도체 YBCO의 핵심 수수께끼 규명

- UC 샌디에이고(UC San Diego) 연구진이 30여 년간 풀리지 않았던 고온 초전도체 YBCO의 핵심 수수께끼를 규명함.
- 미국 국립과학원회보(PNAS)에 게재된 이번 연구는 대표적인 고온 초전도체인 YBCO(이트륨 · 바륨 · 구리 산화물)에 희토류 원소인 프라세오디뮴(praseodymium)을 첨가하면 초전도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원인을 규명한 연구임. YBCO는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도 초전도성을 유지하지만, 매우 취성이 큰(잘 부서지는) 특성을 가진 소재임.
- 연구진은 기존 30여 년간 받아들여져 온 이론을 뒤집고, 층간 결합(interlayer coupling)이 YBCO의 초전도 특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시했음.
- 이번 연구는 상온 초전도체 개발에 대한 이해를 한층 심화하는 기초 연구 성과로, 향후 전력 송전, 의료영상(MRI), 핵융합 자석 등 다양한 차세대 초전도 기술 개발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됨.

※ <https://phys.org/news/2026-07-year-puzzle-mysterious-superconducting-material.html> #goog_rewarded

□ 자율주행차(AV) 안전 성능 대폭 향상 학습 기법

- 미시간대 연구진이 자율주행차(AV) 안전 알고리즘의 성능을 최대 90%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학습 기법을 개발함.
- 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된 이번 연구는 실제 사고 데이터뿐 아니라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않았지만, 위험성이 높았던 근접 사고 (near-miss)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학습에 반영한 것이 특징임.
- 연구 결과, 근접 사고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을 통해 자율주행 알고리즘의 위험 상황 인식 및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.
- 이번 연구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 및 검증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,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- 현재 미국에서는 매년 약 4만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으며, 자율주행 기술은 이러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핵심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.
- 그동안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는 1,600억 달러 이상이 투자되었지만,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대중의 수용도는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임.

※ <https://techxplore.com/news/2026-07-cars-av-algorithm.html>

□ 북동 태평양 빙산 변화가 대서양 해류 순환에 미치는 영향

- UC 데이비스 연구진이 북동태평양의 빙산 붕괴와 용해가 대서양 해류 순환 약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.
- 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된 연구는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(AMOC)의 약화 원인에 관한 기존 이론을 재검증했음.
- AMOC는 열대의 따뜻한 해수를 북대서양으로 운반해 지구 기후를 조절하는 핵심 해류 시스템인데, 기존에는 북대서양 빙산의 용해가 AMOC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졌음.
- 그러나 연구진은 북동 태평양의 빙산 변화가 먼저 발생하면서 AMOC가 약화했을 가능성을 제시했음.
- 또한, 북대서양의 빙산 붕괴 역시 AMOC가 이미 약화한 이후

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고 분석했음.

- 이번 연구는 빙하기의 급격한 기후 변화 메커니즘을 새롭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음.

※ <https://phys.org/news/2026-07-icebergs-weaken-massive-ocean-current.html>

□ 두뇌의 정보 처리 방식을 모방한 초저전력 AI 반도체

- 노스웨스턴대 연구진이 인간 소뇌(cerebellum)의 정보 처리 방식을 모방한 초저전력 AI 반도체를 개발함.
- 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된 이번 연구는 평상시에는 최소한의 전력만 소비하다가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활성화되는 인간 소뇌의 정보 처리 메커니즘을 반도체 설계에 적용한 것이 특징임.
- 실험 결과, 개발된 반도체는 심장 박동 한 주기의 5분의 1 이내에 비정상적인 심장 박동을 탐지했으며, 부정맥 탐지 정확도는 98% 이상을 기록했다.
- 또한, 기존 AI 방식 대비 약 1만 배 적은 연산량만으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해 뛰어난 연산 및 에너지 효율을 입증했음.
- 연구진은 이번 기술이 AI 시스템의 전력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반도체 설계 방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.
- 해당 기술은 웨어러블 의료기기, 자율주행차, 자율 로봇, 사이버 보안 시스템 등 실시간 감시와 즉각적인 이상 징후 대응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.

※ <https://techxplore.com/news/2026-07-brain-hardware-faster-power-anomaly.html>

□ 알츠하이머 증상 발현 시기 예측 혈액검사 기술

- 미 국립보건연구원(NIH) 지원 연구진이 알츠하이머병 증상 발현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혈액검사 기술을 개발함.
- Nature Medicine에 게재된 이번 연구는 혈액 속 원형 RNA (circular RNA, circRNA)가 알츠하이머병의 진행과 증상 발현 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유망한 바이오마커임을 확인했음.
- 기존 혈액검사는 아밀로이드 및 타우 단백질을 검출해 알츠하이머병의 존재 여부를 진단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, 증상이 언제

나타날지는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.

- 반면, circRNA는 뇌의 최근 생물학적 변화를 반영해 증상 발현 시점을 더욱 정확하게 예측할 가능성을 제시했음.
- 연구진이 개발한 예측 모델은 현재 대표적인 혈액 바이오마커인 pTau217 기반 검사와 유사한 수준의 진단 성능을 보였으며, 증상 발현 시기 예측에서도 높은 잠재력을 확인했음.
- 연구진은 이번 기술이 알츠하이머병 임상시험 대상자 선별, 질병 진행 예측, 조기 치료 전략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음.

※ <https://www.nih.gov/news-events/news-releases/new-alzheimers-blood-test-may-tell-when-symptoms-are-around-corner>

2) 인문 · 사회분야

□ 게임 연구, 기술 이면의 정치 · 권력 구조 분석 필요

- 뉴욕대 연구진이 디지털 게임 연구는 기술적 요소뿐 아니라 그 이면의 사회 · 정치적 권력 구조까지 함께 분석해야 한다는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함.
- Just Tech에 게재된 이번 연구는 디지털 게임을 단순한 오락 콘텐츠가 아니라 사회적 권력, 역사, 기술이 상호작용하는 문화적 산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
- 연구진은 기존 게임 연구가 인종, 성별, 백인 중심주의 등 사회적 권력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음.
- 또한 디지털 기술은 사회적 약자들의 경험과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발전해 왔다는 점에 주목하며, 이러한 배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.
- 연구는 게임 연구가 소프트웨어 연구와 컴퓨터 기술의 역사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때, 게임을 둘러싼 사회 · 문화적 의미와 권력 관계를 보다 폭넓게 분석할 수 있다고 제안했음.
-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게임 연구를 페미니즘, 반인종주의, 과학기술 비판(STS) 담론과 연계하는 새로운 학제 간 연구 방향을

제시했음.

※ <https://just-tech.ssrc.org/field-reviews/critical-game-studies-and-its-afterlives-why-game-studies-needs-software-studies-and-computer-history/>

□ 인문학 연구의 정치화 비판 보고서 논란 확산

- 인문학 연구의 정치화 여부를 둘러싼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미국 학계에서 공정성과 연구 윤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음.
-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와 반더빌트대 연구진이 발표한 보고서는 일부 인문학 분야가 객관적 진리 탐구보다 정치적 목표를 우선 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했다.
- 이에 대해 일부 인문학 교수와 미국대학교수협회(AAUP) 워싱턴대 지부는 보고서의 공정성과 연구 윤리에 의문을 제기했음.
- 비판 측은 보고서가 연구비 출처와 이해충돌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으며, 연구진의 기존 정치적 입장과 생성형 AI 활용 방식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음.
- AAUP는 해당 보고서가 정치화된 연구를 비판하면서도, 오히려 스스로 정치화된 연구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음.
- 한편, 해당 대학 측은 보고서 작성에 투입된 예산 규모와 재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.

※ <https://www.studlife.com/news/2026/07/12/washu-and-vanderbilt-commissioned-report-on-the-humanities-comes-under-fire>

□ AI 생성 불법 아동 성 착취물 탐지 기술

- MIT 연구진이 불법 AI 생성 아동 성착취물(CSAM)을 제작하도록 변조된 AI 모델을 탐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함.
- 국제머신러닝학회(ICML) 워크숍에서 발표된 이번 연구는 오픈소스 AI 모델이 불법 콘텐츠 생성 목적으로 개조됐는지를 실제 불법 이미지를 생성하지 않고도 판별하는 데 초점을 맞췄음.
- 기존 평가 방식은 AI 모델에 불법 콘텐츠 생성을 직접 요구한 뒤 결과물을 확인해야 했으나, CSAM은 생성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적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음.
- 연구진은 AI 모델의 내부 구조와 미세조정 기법인 LoRA(Low-Rank Adaptation)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해 모델의 위험성을

평가하는 방식을 개발했음.

- 실험 결과, 해당 기술은 CSAM 생성 목적으로 특화된 AI 모델을 100%의 정확도로 식별했으며, 이 과정에서 불법 이미지를 단 한 장도 생성하지 않아 법적·윤리적 문제를 피할 수 있었음.
- 연구진은 이번 기술이 AI 모델 공유 플랫폼과 수사기관 등이 위험한 모델을 사전에 식별하고 유통을 차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음.

※ <https://techxplore.com/news/2026-07-method-aims-kids-safe-illegal.html>

□ 과학자의 신뢰도, 연구 내용보다 동기에 좌우

- 버지니아공대 연구진이 과학자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연구 내용보다 연구 동기에 대한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.
-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에 게재된 이번 연구에 따르면, 대중은 과학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연구를 수행한다고 인식할수록 연구 결과를 더 신뢰하고 관련 정책도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.
- 연구진은 과학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중을 열성 지지층, 낙관층, 중도층, 회의층, 소외층의 5개 집단으로 분류했으며, 집단별로 과학자에 대한 신뢰 수준과 정책 수용 태도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음.
- 특히 과학자의 전문성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는 인식이 신뢰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됐음.
- 연구진은 과학자들이 연구 성과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, 연구의 목적과 사회적 가치, 공익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대중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제안했음.

※ <https://phys.org/news/2026-07-scientists-credibility-audience.html>

□ 생성형 AI 챗봇 금융 상담 문제점, 신중 활용 필요

- 조지아대 연구진이 생성형 AI 챗봇의 금융 자문은 일관성과 편향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신중한 활용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

발표함.

- Journal of Financial Planning에 게재된 이번 연구에 따르면, 동일한 금융 상황을 제시하더라도 사용하는 생성형 AI 챗봇에 따라 서로 다른 투자 및 재무관리 조언이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연구진은 개별 조언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, 플랫폼별 응답의 차이와 잠재적인 편향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.
- 이에 전문가들은 생성형 AI를 재무 의사결정의 최종 판단 수단이 아닌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, 중요한 금융 결정은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검토할 것을 권고했음.
- 연구진은 생성형 AI 기반 금융 서비스가 확산될수록 알고리즘의 일관성, 공정성,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
- 이번 연구는 생성형 AI의 금융 분야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, AI 기반 금융 자문의 신뢰성과 잠재적 편향 문제를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로 평가됨.

※ <https://phys.org/news/2026-07-chatbot-bank-account-analysis.html>

2 과학기술 R&D · ICT 정책 동향

1) 과학기술 R&D · ICT 분야

□ 미 국립과학재단, 강화된 연구 보안 정책 도입

- 미 국립과학재단(NSF)이 국가안보 위험 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제한하는 새로운 연구 보안 정책을 도입하기로 함.
- 새 정책은 2027회계연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, 국방부 등 연방기관이 국가안보 위험 대상으로 지정한 기관과의 공동연구에 NSF 연구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.

- 제한 대상에는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(Huawei)와 일부 중국 대학 등이 포함되며, NSF 연구책임자는 해당 기관의 검직을 맡거나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음.
- 대학과 연구기관은 NSF 연구과제를 신청할 때 새로운 연구 보안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의무적으로 인증해야 함.
- NSF는 기존의 연구 보안 조치만으로는 국가안보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, 국방부의 연구 협력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.
-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, 동일한 연구 보안 기준을 연방정부 전체에 적용하는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음.

※ <https://www.aip.org/fyi/the-week-of-july-13-2026>

□ 백악관, 양자 기술 경쟁력 강화 행정명령 발표

- 미국 백악관이 양자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 「양자 혁신의 새로운 지평(Ushering in the Next Frontier of Quantum Innovation)」을 발표함.
- 이번 행정명령은 양자정보과학(QIST, Quantum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)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국가 전략으로 육성해 미국의 양자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.
- 정부는 2028년까지 과학 연구용 고성능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고, 양자 센서와 양자 네트워크의 실용화를 가속화할 계획임.
- 또한 연방정부, 민간기업, 대학, 국립연구소간 협력을 확대해 핵심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한편, 반도체, 극저온 장비, 희토류 등 양자 기술 핵심 공급망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음.
- 아울러 동맹국과의 국제 협력을 확대해 양자 기술 분야의 공급망 안정성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방침임.
- 이번 행정명령은 양자컴퓨팅, 인공지능(AI), 국가안보 등 전략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기술 주도권을 유지·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평가됨.

□ 미 국립과학재단, 양자 기술 상용화 신규 프로젝트

- 미 국립과학재단(NSF)이 양자 기술의 통합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규 연구 사업 ‘Project Triad’를 발표함.
- Project Triad는 양자 센서, 양자 네트워크, 양자컴퓨팅을 하나의 통합 운영 체계로 연결하는 세계 최초의 연구 사업임.
- NSF는 개별적으로 개발돼 온 양자 기술을 통합함으로써, 연구실 단계의 기술을 실제 산업과 사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.
- 주요 활용 분야로는 공공안전, 의료, 에너지, 제조업 등이 제시됐으며, 미국 산업계의 양자 기술 상용화와 확산을 뒷받침할 과학·기술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음.
- NSF는 이번 사업이 미국의 경제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강화하고, 양자 기술 관련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음.
- Project Triad는 백악관이 발표한 양자 기술 경쟁력 강화 행정명령과 연계해 추진될 예정임.

※ <https://www.nsf.gov/news/nsf-launches-project-triad-advance-quantum-technology-real>

□ AI 시대 전략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·EU 협력의 중요성

- 미국과 유럽연합(EU)이 AI 시대의 전략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정책 보고서가 발표됨.
- RAND 연구소는 현재 미국과 EU 간 AI 협력이 연구개발과 투자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,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체계로는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음.
- 보고서는 미·중 AI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AI 협력은 경제 경쟁력뿐 아니라 국제 규범과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한 핵심 요소라고 분석했음.
- 또한 AI 발전 경로를 가치 창출 구조와 개방형 AI 모델의 수준에 따라 구분하고, AI 평가·시험·표준의 상호운용성 확보와 첨단 반도체 공정 기술 협력을 양측이 우선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로

제시했음.

- 아울러 대중국 수출 통제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, 미국과 EU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AI 핵심 기술, 공급망, 표준을 공동 구축하는 전략적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함.
- 보고서는 이러한 협력이 미국과 EU의 기술 경쟁력 제고는 물론, 글로벌 AI 거버넌스와 국제 표준을 주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음.

※ https://www.rand.org/pubs/research_reports/RRA4754-1.html

□ 미 국립보건연구원, 세계 최대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

- 미 국립보건연구원(NIH)의 ‘All of Us’ 연구 프로그램이 세계 최대 규모의 통합 유전체·보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.
- 이번 데이터베이스에는 53만 5,000명 이상의 전장유전체(Whole Genome Sequencing, WGS) 정보와 전자의무기록(EHR), 생활 습관, 환경 정보 등이 통합되어 있음.
- 특히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폭넓게 포함돼 있어, 정밀의학 연구를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이자 가장 다양한 유전체·보건 데이터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음.
- 연구자들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 질병 위험 예측, 신약 개발, 맞춤형 치료법 개발 등 정밀의학 연구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NIH는 이번 데이터 공개가 정밀의학과 AI 기반 바이오의학 연구를 크게 가속화하고, 질병 예방과 치료 혁신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했음.
- All of Us 프로그램은 미국 국민의 다양한 유전적·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연구 기반을 구축함으로써, 미래 의료 혁신과 정밀의학 발전을 지원하는 미국의 핵심 국가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음.

※ <https://www.nih.gov/news-events/news-releases/nihs-all-us-research-program-now-largest-integrated-genomics-health-database-world>

2) 인문 · 사회분야

□ 미 정부 정책 변화, 신진 연구자 진로에 큰 영향

-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연구비 축소와 정책 변화가 미국 신진 과학자들의 진로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됨.
- 미국경제연구소(NBER)의 분석에 따르면, 연방정부의 연구지원 축소 이후 박사과정생과 박사후연구원의 학계 진출 의향은 22%, 미국에 남아 연구를 계속할 의향은 21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.
- 연구진은 연구비 동결과 예산 삭감 추진, 비자 정책의 불확실성 등이 젊은 연구자들의 고용 안정성과 장기적인 연구 경력에 대한 불안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음.
-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수 연구인력의 학계 이탈과 해외 유출이 확대돼, 미국의 미래 연구인력 확보와 과학 기술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음.
- 보고서는 단기적인 예산 절감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연구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신진 연구자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미국의 장기적인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.

※ <https://www.forbes.com/sites/michaelnietzel/2026/06/16/trumps-research-policies-are-causing-young-scientists-to-doubt-future-careers/>

□ 미 국립인문기금, 건국 250주년 학생 미술대회 개최

- 미 국립인문기금(NEH)과 프리덤 250(Freedom 250)이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‘미국 영웅 학생 미술대회(American Heroes Student Art Contest)’ 시상식을 개최함.
- 이번 행사는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워싱턴 D.C.에서 열렸으며, 미국 전역과 해외 영토에서 선발된 130여 명의 초·중·고등학생이 참가했음.
- 시상식에서는 주(州)·지역·전국 단위 수상자가 발표됐으며, Task Force 250, NEH, Freedom 250 관계자와 부통령 배우자 등이 참석했음.
- 이번 대회는 미국 역사 속 주요 인물을 주제로 한 미술 작품 제작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

마련됐음.

-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미국 건국 250주년을 계기로 미래 세대의 시민의식과 역사 인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음.

※ <https://www.neh.gov/news/freedom-250-and-national-endowment-humanities-honor-winners-national-american-heroes-student>

□ EBSCO, 옥스포드대와 디지털 인문학 연구자 지원

- 학술정보 서비스 기업 EBSCO가 영국 옥스퍼드대 보들리언 도서관(Bodleian Libraries)의 ‘디지털 인문학 펠로십(EBSCO Fellowship in Digital Humanities)’을 지원한다고 발표함.
- 이번 사업은 디지털 인문학 연구자들이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비와 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임.
- 선정된 연구자는 보들리언 도서관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소장 자료와 디지털 장학센터(Centre for Digital Scholarship)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음.
- 프로그램은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인문학 연구에 접목하는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, 연구자들의 국제 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학문적 역량 강화, 경력 개발도 함께 지원함.
- EBSCO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1차 사료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통해 다양한 역사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음.

※ <https://www.prnewswire.com/news-releases/ebsco-information-services-supports-oxford-university-humanities-fellowship-302820431.html>

□ 미 SSRC, 연방 연구비 중단 위기 경제학 연구 긴급 지원

- 미국 사회과학연구위원회(SSRC)가 연방 연구비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학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‘경제학 연구 긴급지원 기금(Economic Research Rescue Fund)’을 출범함.
- 이번 사업은 알프레드 P. 슬론 재단(Alfred P. Sloan Foundation)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며, 연방 연구비 중단으로 차질을 빚은 경제학 연구를 대상으로 2만 5,000~25만 달러의 긴급 연구비를 지원함.
- SSRC는 단순한 긴급 연구비 지원을 넘어, 공공 연구의 사회적 가치와

영향력을 반영하는 새로운 연구지원 모델을 함께 시범 운영함.

- 기존의 학계 전문가 중심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, 언론, 교육, 공공 서비스, 기업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평가위원회(Citizen Review Panel)를 운영해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연구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 기여도를 평가하도록 했음.
- SSRC는 이번 사업이 연구의 학문적 우수성뿐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과 공공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연구지원 체계를 제시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.

※ <https://www.ssrc.org/news/2026/06/10/the-economic-research-rescue-fund-new-perspectives-on-the-perceived-public-value-of-economic-research/>

□ 미국 최초의 사회과학 성 연구 지원 프로그램

- 미국 사회과학연구위원회(SSRC)가 성 연구 발전에 기여한 ‘성 연구 펠로우십 프로그램(Sexuality Research Fellowship Program, SRFP)’의 운영 성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공개함.
- SRFP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운영된 미국 최초의 사회과학 기반 성 연구 지원 프로그램으로, 포드 재단(Ford Foundation)의 지원을 받아 박사과정생과 박사후연구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함.
- 이 프로그램은 성을 단순한 공중보건이나 개인적 문제로 다루는 데서 벗어나, 사회·문화·정치적 맥락에서 분석하는 학문적 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음.
- 또한 신진 연구자와 선임 연구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, 연구 성과가 정책 결정과 공공 담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확산하는 데도 도움을 줌.
- SSRC는 SRFP가 성과 젠더에 관한 연구를 미국 사회과학계의 독립적인 연구 분야로 정착시키고, 관련 연구자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음.

※ <https://items.ssrc.org/from-our-archives/the-sexuality-research-fellowship-program-ten-years-after/>

□ 미 에너지부,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스타트업 지원

- 미 에너지부(DOE)가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‘페로브스카이트 스타트업 경진대회(Perovskite Startup Prize)’를 실시한다고 발표함.
- 총 300만 달러 규모로 운영되는 이번 대회는 고효율 · 저비용 차세대 태양광 기술로 주목받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상용화와 관련 스타트업 육성을 목표로 함.
- 대회는 1단계 사업계획 평가와 2단계 기술 검증 및 창업 · 사업화 지원으로 진행됨.
- 1단계 통과팀에는 각각 20만 달러의 상금이 지급되며, 최종 우승팀에는 현금 50만 달러와 10만 달러 상당의 기술지원 바우처가 제공됨.
- 참가팀은 미국 국립연구소, 투자자, 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American-Made Network를 통해 기술 자문과 시험 · 검증, 투자 연계 및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음.
- 에너지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조기업을 육성하고, 차세대 태양광 산업의 공급망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음.

※ <https://www.energy.gov/cmei/systems/american-made-challenges-perovskite-startup-prize>

□ 애플, AI 모델 압축 기술 스타트업에 관심

- 애플이 AI 모델 압축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프리즘ML(PrismML)의 기술 도입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.
- 프리즘ML은 대규모 AI 모델을 기존보다 최대 15배 적은 메모리로 구동할 수 있는 압축 기술을 개발했으며, 이를 활용해 고성능 AI 모델을 아이폰에서 직접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.
- 회사는 약 54GB의 메모리가 필요한 270억 개 매개변수 규모의 AI 모델을 4GB 이하로 압축해 최신 아이폰에서 구동하는 데 성공

했다고 밝혔다.

- 애플은 현재 해당 기술의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, 실제 구동 성능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, 양측의 협의는 아직 초기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음.
- 이 기술이 도입될 경우 더 많은 AI 기능을 클라우드가 아닌 아이폰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어 응답 속도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- 향후 기술이 상용화되면 스마트폰에서 AI를 구현하는 방식뿐 아니라 기기 메모리 구성과 클라우드·데이터센터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.

※ <https://www.cnn.com/2026/07/14/apple-prismml-ai-compression-iphone.html>

□ SBIR/STTR 재개, 기술 기업 자금 조달 기회 확대

- 미국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인 SBIR/STTR (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/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) 프로그램이 재승인되면서 초기 기술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조달 기회가 다시 확대됨.
- SBIR/STTR은 연방정부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으로, 2025년에는 약 80억 달러가 6,700여 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지원됐음.
- 프로그램 재승인에 따라 해외 기관과의 연구 협력에 대한 보안 심사가 대폭 강화됐으며, 기업별 지원 횟수 제한 등 새로운 운영 규정도 도입됐음.
- 또한 연구개발 성과가 상용화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른바 ‘죽음의 계곡(Valley of Death)’을 극복할 수 있도록 브리지 지원 제도를 신설해 후속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.
- 업계는 이번 프로그램 재개가 미국 스타트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첨단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
※ <https://siliconprairienews.com/2026/07/sbir-funding-is-back-heres-what-startup-founders-need-to-know/>

□ 바이오 벤처 투자, 자가면역질환과 암 치료제 개발에 집중

- 2026년 상반기 바이오 벤처투자의 40% 이상이 자가면역질환과 암 치료제 개발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.
- 주요 벤처투자사 26곳은 상반기 바이오 스타트업에 9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, 이 가운데 약 39억 달러가 자가면역질환 및 항암제 개발 기업에 투입됐음.
- 특히 루푸스, 아토피 피부염, 염증성 장 질환 등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에는 약 21억 달러가 투자된 것으로 집계됐음.
- 일부 스타트업은 자가면역질환과 암을 동시에 겨냥한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음.
- 시장조사업체 피치북(PitchBook)은 암과 자가면역질환 분야의 신약 개발 경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, 관련 기업으로의 투자 유입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음.

※ <https://www.biopharmadive.com/news/cancer-immune-venture-funding-2026/824250/>

□ 벤처투자 AI 분야 주도, 시장 양극화 심화

- 실리콘밸리은행(SVB)이 발표한 ‘2026년 상반기 시장 보고서’는 AI가 벤처투자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투자 집중과 시장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함.
-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미국 벤처투자 규모는 약 3,400억 달러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, 투자 자금은 소수의 초대형 AI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음.
- 2022년 이후 미국 AI 분야에는 약 5,600억 달러가 투자됐으며, 상위 5개 AI 기업이 전체 AI 투자금의 약 3분의 1을 유치한 것으로 집계됐음.
- 보고서는 이러한 투자 집중 현상으로 인해 일반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고, 벤처투자 시장 내 기업 간 격차도 확대되는 등 시장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음.
- 또한 향후 벤처투자 시장을 주도할 핵심 분야로 인공지능(AI), 사이버보안, 국방기술(Defense Tech), 첨단 반도체 등 전략기술

분야를 제시했음.

- SVB는 AI 중심의 투자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, 혁신 기술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기반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음.

※ <https://www.svb.com/trends-insights/reports/state-of-the-markets-report/>